

사실 확인 진술서

본인 양은 현재 (주) 도이치 모터스 권오수 대표와 부모님의 사업 관계로 약 30년간 알고 지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우회상장에 참여한 경위는 2008년 권오수 대표가 (주) 도이치 모터스 회사 (BMW 딜러 사업) 사업을 시작한 후, 단 한번도 흑자를 낸 적도 없고, 돈이 없어져 커피잔에 과자를 넣으면 녹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 도이치 모터스가 흑자를 내지 못하니, 직상장은 어렵고, 우회상장을 하면,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 상장에 실패하면, 제가 투자한 원금에 이자를 20%를 주겠다고 하며, 큰돈을 벌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제가 (주) 도이치 모터스 우회상장에 10억원을 투자한 후, 권오수 대표는 돈을 벌수 있는 또 한번의 마지막 기회가 있다며, 합병할 (주) 라르앤고 3자 배정을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부모님 (양, 박)에게 7억 원을 투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권오수 대표가 3자 배정을 받게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 해 버려, 큰 손실을 입게 했습니다. 이에 권오수 대표가 다시 찾아와서, 주식 단가가 높아졌으니,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할테니, 소위 "물라기"를 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돈을 더 투자할 수 밖에 없었고, 1년 보호예수기간이 풀려도 낮은 주식 가격에 원금을 돌려 봐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주식도 처분 못하고, 제 주식 또한 처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권오수 대표가 당시 두창성유(주) 대표인 이 을 소개해서, 회사 이름은 성유회사지만 (이회사는 권오수 대표가 운영했던 회사임), 곧 흥흥회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권오수 대표는 이 대표가 주식 관리를 할 것이며, 상장주주들은 상장을 주식을 바로 팔지 못하게 주식을 주주에게 바로 돌려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이치 주식 가격 관리를 위해, 주식을 늦게 받은 까닭에, 저는 상장초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놓쳤습니다.

2008년 10월 중순에, (금융위기로 르스피가 70조 사라진 증시) 권오수 대표가 정확히 도이치 주식을 매입하려며, 자신이 책임을 전하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30년 인간 관계로 도와주어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아버지는 우리 증원 계좌 ()로, 평균단가 692원에 6억 원을 매입해 주셨습니다. 그날 도이치 모터스와 한종목만 빼고, 모든 주식을 폭락했습니다. 그해 12월에 권오수 대표에게 아버지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하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주) 두창성유 이 대표가 정확히 주식을 주당 660원에 매각 하라고 했습니다. 전 권오수 대표를 워커히 호텔에서 만나, "이 는 결정권자가 아니다. 초짜인 나에게 주식을 매각 하라고 하면서 왜 이 뒤에 숨을 수 있는냐? 책임을 지지 않느냐?" 하고 짜리니, "무엇이 걱정이냐? 왜 초촌하고 불안해 하느냐. 내가 720원에 너의 주식을 받을테니, 주식을 실어라, 다 받아내겠다" 라고 했습니다.

'돈' 가지고 30년 인간 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 권오수 대표에게 660-680원, 아니 6도 빼줬다고 하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파는 날, 이 대표가 700원, 705원, 710원, 715원에 수정해서 불이라고 (매도 주문) 해서, 권오수 대표에게 전화해서 들으니 "이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하니 "그렇게 하면 된다. 꼭 건드니까 (주식) 막 나오네" 가격을 내려 수정하니, '고맙다'라고 하면서 끊었습니다.

2010년 1월 29일에 권오수 대표가 저를 만나, 삼성 오크우드 로컬 5층 커피숍에 갔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식을 알기면, 잘 판리를 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20억을 알기면, 한달에 3억을 받는 사람이 있을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수수료를 이 대표가 50:50으로 하는 것을 70:30으로 주주 입장에서 깎았으니, 만나 보자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김 모리스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상장 주주인 김 대표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약정서를 내밀기에, 제가 "형 (권대표이름), 약정서를 야 해?" 하니 권오수 대표는 "아니야, 약정서를 쓰고 싶지 않으면 쓰지마. 내 모든것을 책임질게"라고 했습니다. 권 대표가 며칠 후 제 사무실로 와서, 계고 제이름으로 있고, 신용은 이 대표가 하는 거라면서, HTS, 보안카드는 주어지지만, 증권카드, 도장은 본인이 꼭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주가 지난후, 삼성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해 할 수 없는 경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래를 하면, 주식 거래를 못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놀라서 권오수 대표를 만나, "이 ~~주식~~ 사람 맞아? 모르는 나도 상식적으로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사야지. 이 사람은 높은 가격에 사고 있대... 증권사들에게 경고 받았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으니 뭉뚱 부딪이었습니다. 이 대표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후에 보니, 그 거래 때문에 약 10만주 정도를 잃어 버렸습니다. 권오수 대표가 그 당시 주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30년 믿음으로 ('말이 곧 '약속') 계속 주식을 알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권오수 대표가 저에게 이 대표가 좋은 제안을 할 거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너는 상장 주주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이 대표가 입원했다며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병실에 가 보니, 밤상에 '특성 환자'라는 메모가 있었고, 피가 흥건한 환자복이 한쪽에 있길래, 무슨 병이냐고 물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인데, 몸이 아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권오수 회장이 몸이 다시 건강해져서 일을 하게 된다면, 자신을 CARE 해 줄 거 있다고 생각했고, 그 루티기로 생각해 도이치 일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 모리스 주식을 파서 키리시에게 마...

그 후로, 이 대표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양 가 안 하겠다고 했으니, 안하냐' 라고 권오수 대표에게 말하니, 몇분후 권오수 대표가 전화를 다시 해 '김 도 있 김정희도 있고, 다른 주주들도 있으니. 하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같은날, 저는 권오수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이 대표에게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다고 하면 부모님 원금을 보장하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오수 대표는 "찝찝하면 하지마" 하 했습니다.

권오수 대표가 포르투갈 BMW 딜러 회의에서 돌아온후, 제가 이 대표에게 주식을 건것을 알고 (이 대표에게 듣고와서는). 제 사무실에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야, 너 이일 잘 되면, 널 이바락에서 날리는 거야 (최고의 의미), 여자로서 쉽 않은 일이라며, 배짱이 대단하라고 그 업계사람들이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후, 권오수 대표가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일주일 안에 이 대표가 상공가를 3번 치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못했으면서, 이 대표는 돈이 없는게랄 이라고 주조건 사채시장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으셨는데, "은 모르지만, 안되는 일을 한거냐?" 하시니까, 잘될 확률, 안될 확률 50대 50 이지만, 내가 망하면, 이 이 망하고, 그러면 내가 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는 나뉘 대로 똑똑하지만, 순수해서 리스크 관리를 못한다면서, 빨리 명등사채시장에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삼, 사천원 일때, 나와야지 육천천원이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등.. 이해할수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하여튼 권오수 대표 태도가 180도 싹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대표는 나에게 잘못된 것이 없는지 일방적으로 어떻게 계약을 파기 할수 있냐고 했습니다. 권오수 대표는 지금 계약 파기하면, 이 대표에게 주가가 칠천원이 가면, 돈을 지불해야 하고, 유상증도 하게 되어 있으니, 양에게 유상증자의 일정한 몫을 주겠음 하겠다고 했습니다. 명등사채시장에서 나오면서, 이 대표에게 잃어버린 십만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권오수 대표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오수 대표는 AK라는 펀드가 도이치주식을 매한후, 주식을 매도 못해, 도이치 본사에 찾아와서 회계를 열람 하라는 등 횡포를 부려 사전에 모든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감춰 AK물량 고스란히 갑자기 썰어 안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권오수 대표가 양 대표에게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질 십만주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2011년 3월 하순에, 저의 짝안 형편이 어려워져 책임진다는 10만주 (당시 약 7~8억 사이) 를 권오수 대표에게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권오수 대표는 제가 권오수 대표에게 빌린 1억2천에 대해 얘기하면서 책임질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제 부모님과의 비즈니스, 다른 새가...

또한, 권오수 대표 없이 어떻게 이 대표를 알았으며, 주식을 맡겼겠냐고
했습니다. 권오수 대표는 못 주겠다고 하며, 마음대로 하라며, 양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

제가 쓴 이 글은 사실이며, 이 대표를 알게 된 경위, 돌려 받지 못한
책임전다던 심만주에 대한 경위, (주) 도이치 포리스 권오수 대표와의 모든
비즈니스 관계는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요청시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시 하는 일에 최대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합니다.

2011년 4월 1일

양

